

또래관계에 대한 자기평가편향과 주관적 안녕감, 대인행동의 관계: 적정한계선 가설의 검증*

이 은 주*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염 혜 선

신라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본 연구는 실제 또래관계에 비해 자신의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편향되게 지각하는 경향이 주관적 안녕감 및 기본심리욕구 지지적인 대인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특히 긍정적 착각의 적정한계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자기평가편향이 이들 변인과 곡선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 346명을 대상으로 또래관계에 한정된 영역특수적 자기평가와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또래관계 지표인 내향중심성을 준거로 자기평가편향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또래관계에 대한 자기평가편향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기평가편향은 부정정서와 유의미한 정적 곡선관계, 관계성지지 대인행동과 유의미한 부적 곡선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착각의 적정한계선 가설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긍정적 자기평가편향이 높을수록 부정정서는 낮고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관계성 욕구를 지지하는 대인행동을 많이 하지만, 자기평가편향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부정정서는 높아지고 관계성 지지행동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긍정정서, 유능성지지 대인행동, 자율성지지 대인행동에 대해 정적 선형관계를 나타낸바, 긍정적 착각의 적정한계선 가설이 모든 결과변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연구의 의의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자기평가편향, 긍정적 착각, 대인행동, 주관적 안녕감, 적정한계선 가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1035532).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은주,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E-mail: elee@knu.ac.kr

연구의 필요성

자기평가는 편파적이고, 신뢰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부정확하다는 점이 수많은 연구에 의해 입증되어 왔다. 이처럼 객관적 준거에 비해 자신을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왜곡해서 편향된 평가를 하는 경향을 자기평가편향(self-estimation bias)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왜곡해서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자기고양(self-enhancement), 또는 긍정적 착각(positive illusion)이라고 한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그보다 낮게 과소평가를 하기도 하고, 객관적 준거와 일치하는 현실적 자기평가를 하기도 한다(Kwan, John, Kenny, Bond, & Robins, 2004).

그렇다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치우친 평가를 하는 것과 정확한 자기평가를 하는 것 중 무엇이 더 바람직할까? 이 질문에 관해 자기고양이 적응적이라는 연구(Dufner, Reitz, & Zander, 2015), 자신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적응적이라는 연구(Narciss, Koerndle, & Dresel, 2011), 자기고양은 적응적이기도 하고 부적응적이기도 하다는 연구(Dupeyrat et al., 2011) 등 선행연구의 결론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자신의 유능감에 대한 지각과 자기평가는 이들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 그에 따라 이후의 적응과 발달의 과정은 어떠한지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Brendgen, Vitaro, Turgeon, Poulin, & Wanner,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자기지각을 증진하려는 치료적 개입을 통해 성취도나 대인관계, 행복감 등에 정적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주장(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을 고려할 때, 자기고양

이 과연 적응적인가 아니면 부적응적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평가편향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자기고양의 효과는 자기고양의 영역(학업적 자기고양, 사회적 자기고양, 전반적 자기고양 등)이나 적응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Brendgen et al., 2004). 예컨대 학업적 자기고양은 학업적 적응에 도움이 된 반면, 사회적 자기고양은 오히려 학업적 적응에 대해 역효과가 있었다(Leduc & Bouffard, 2017). 또한 자기고양의 효과는 적응 영역에 따라 다르다(Murphy, Barlow, & von Hippel, 2017). 예컨대 학업적 및 사회적 자기고양은 심리적 적응(주관적 행복감, 정신건강, 안녕감 등)에 정적 효과(Dufner et al., 2015; Taylor, Lerner, Sherman, Sage, & McDowell, 2003)가 있었지만, 사회적 적응(인기도, 낮은 공격성 등)에는 부적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백수경, 고재홍, 2007; Robins & Beer, 2001; Stephens, Lynch, & Kistner, 2016).

이처럼 자기고양의 효과는 어떠한 영역에서의 자기고양을 측정했는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비일관적이고 복잡한 연구결과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영역에서의 편향을 의미하는지 그 영역으로 제한해서 자기평가편향의 효과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영역에 한정된 영역특수적 자기평가편향, 구체적으로 또래관계에 대한 자기평가편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한 자기평가편향의 효과는 적응 영역에 따라 다르다는 점(Butler, 2011; Murphy et al., 2017)을 고려하여 심리적 및 사회적 적응에 대한 효과를 포괄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또래관계에 대한 자기평가편향에 주목한 이유는 학업적 영역에 비해 대인관계 영역에서 자기평가편향을 살펴 본 연구에서 더욱 모호하고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가 보고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Butler, 2011). 학생들이 자신의 또래관계에 대해 과도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이들의 실제 또래관계에 도움이 되는 행동과 정서를 유발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또래관계를 손상시키게 될지 모호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또래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하려는 선부른 교육적 개입은 자칫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고려할 때 또래관계에 대한 자기평가편향의 효과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긍정적 효과가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비록 과도하게 긍정적일지라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까? Taylor와 Brown(1988)의 긍정적 착각 모델에 따르면 자기고양과 결과변인 간에 선형의 정적관계가 있으므로, 자기고양은 적응에 도움이 되며 이러한 효과는 과도한 자기고양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해석된다. 그런데 Baumeister(1989)의 긍정적 착각의 적정한계선 (optimal margin of positive illusion) 가설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자기고양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자기고양은 더 이상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 즉, 자기고양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적정한계선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평가편향과 결과변인의 관계는 선형인지 아니면 곡선관계인지,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양상은 자기평가편향과 관련된 결과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자신의 능력이나 상태를 긍정적으로 편향되게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실

제에 비해 오히려 겸양하게 과소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비교적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정확히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평가편향의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대표적인 요인으로 성별 차이를 고려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Blanch, Hall, Roter, & Frankel, 2008). 그러나 수학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언어에서는 오히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Gonida & Leondari, 2011)을 고려할 때, 자기평가편향의 수준에 성별 차이가 있을 것이며 그러한 차이는 자기평가편향의 영역에 따라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회적 영역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유능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서유진, 김사라형선, 2017). 그렇다면 사회적 영역에서 현실에 비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편향되게 평가하는 경향 역시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개념적으로 자기평가편향이란 실제 객관적 준거에 비해 자신을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편향되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준거와 자기평가의 측정 범위(영역특수성 및 일반성)가 일치해야 한다 (Murphy et al., 2017). 즉, 자기평가편향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학업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는 실제 학업성적과 비교되어야 하며, 영어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는 실제 영어성적과 비교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만약 자기평가의 영역이 준거에 비해 광범위하다면(예: 학업적 유능감에 대한 자기평가를 하였지만, 영어성적을 준거로 사용하였다면), 자기평가는 개인

의 능력 중 측정되지 않은 측면에서의 실제 능력(영어 외 다른 과목의 성적)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Swann, Chang-Schneider, & McClarty, 2007).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자기평가편향 정도를 왜곡할 수 있으며 자기평가편향의 효과에 관해서 타당하지 않은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 영역(즉, 또래관계)에서의 자기평가와 그에 상응하는 영역에서의 객관적 지표(실제 또래관계)를 준거로 하여 자기평가편향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제한점과 연구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또래관계에 대한 자기평가편향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또래관계에 대한 자기평가편향과 심리적 및 사회적 적응(주관적 안녕감, 대인행동)의 관계는 어떠한가?
3. 또래관계에 대한 자기평가편향의 긍정적 효과에 적절한계선이 있는가?

이론적 배경

자기평가편향의 효과

자기평가편향의 효과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매우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먼저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자기지각이 심리적, 사회적, 학업적 적응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있다(Robins & Beer, 2001). 많은 연구에서 자기고양이 높을수록 안녕감 및 인기도가 낮았으며(Colvin et al., 1995; Robins & Beer, 2001), 비록 자기고양이 단기적 이득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심리적 적응을 손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Robins & Beer, 2001). 따라서 효율적 행동의 기본은 정확한 자기평가에 있으며, 자신의 유능감에 대해 편향된 지각보다는 정확한 지각이 더 낫다고 주장한다(박유빈, 박선웅, 2015; Colvin et al., 1995; Narciss et al., 2011).

이와 반대로 Taylor와 Brown(1988)은 긍정적으로 편향된 자기평가가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착각 가설(positive illusion hypothesis)을 주장하였다. 실제로 이 가설과 일관되게, 많은 연구에서 비록 과도하게 편향되었을지라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다양한 적응의 지표들과 정적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예컨대 자기고양의 긍정적 효과는 긍정정서나 안녕감과 같은 심리적 적응(백수경, 고재홍, 2007; Dufner et al., 2015; Taylor et al., 2003), 동기와 과제지속, GPA, 졸업률과 같은 학업적 적응(Matten, Burrus, & Shaw, 2010)뿐만 아니라 또래관계, 사회적 선호도와 같은 사회적 적응(Back, Schmukle, & Egloff, 2010; Brendgen et al., 2004)에서 검증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연구들과 달리, 또 다른 연구자들은 자기고양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정서의 증진효과가 있지만 중단적으로 자존감과 안녕감이 하락하고 학업이탈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득과 비용을 모두 내포하고 있음(mixed blessing)을 주장하기도 한다(Robins & Beer, 2001).

자기평가편향의 효과는 정서적 안녕감과 같은 심리적 적응, 학업동기나 학업성취와 관련된 학업적 적응, 또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사회적 적응 등 결과변인에 따라 다른 경향이 있다(노연희, 손영우, 2011; 백수경, 고재홍, 2007; Murphy et al., 2017). 예컨대 자기고양은 심리적 적응(주관적 행복감, 정신건강, 안녕감 등)에 긍정적 효과(Dufner et al., 2015; Taylor et al., 2003), 사회적 적응(인기도, 낮은 공격성

등)에는 부정적 효과가 있었다(백수경, 고재홍, 2007; Robins & Beer, 2001). 그러나 이와 달리 자기고양이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 연구들(Colvin, Block, & Funder, 1995; Robins & Beer, 2001),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 연구들(Leduc & Bouffard, 2011; Murphy et al., 2017)이 혼재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기평가편향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합의된 결론에 이르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Muenks, Wigfield, & Eccles, 2018).

자기평가편향의 적정한계선 가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자기고양과 결과변인 간에 정적 관계가 있는지 부적 관계가 있는지 규명하는데 관심을 두었지만, 둘 사이의 관계가 선형적이기 보다는 곡선적일 가능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둘 사이에 정적 선형 관계가 있다면 자기고양이 높을수록 그에 비례해서 긍정적 효과가 증가한다는 의미이므로, 자칫 자신에 대해 망상 수준의 왜곡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적응 수준이 높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Baumeister(1989)는 긍정적 착각 가설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긍정적 착각의 적정한계선이 있음을 주장했다. 적정한계선이 있다는 것은 자기고양과 결과변인 사이에 선형이 아니라 곡선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적정 수준의 자기고양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수준의 자기평가편향은 오히려 비용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몇몇 선행연구에서 자기고양의 효과에 적정한계선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Kim과 Chiu

(2011)는 학업적 영역에서의 자기평가편향(시험 결과에 대한 자기평가와 실제 성취도의 차이)은 자존감과 부적 곡선관계, 우울감과는 정적 곡선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자신의 학업적 능력에 대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비교적 정확하게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에 비해 우울감은 높고 자존감은 낮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학업적 자기평가편향과 심리적 적응 간에 유의미한 곡선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다(Dufner et al., 2015). 사회적 영역에서의 자기평가편향(사회적 유능감과 실제 또래관계의 차이)의 효과를 검증한 Brendgen 등(2004)의 연구에서 사회적 자기고양은 사회적 선호도 및 우정의 증가, 우울감의 감소와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공격성과 곡선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에서 자기평가편향의 부적 곡선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예외적으로 박유빈과 박선웅(2015)은 학업적 자기평가편향(자기지각 학업능력과 실제 학업성취의 차이)과 학업성취 간에 부적 곡선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학업적 영역에서의 자기고양의 효과를 검증한 것이며, 사회적 영역에서의 자기고양 효과를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기평가편향과 심리적 및 사회적 적응 간에 선형관계와 더불어 곡선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평가편향의 성별 차이

여학생들은 객관적으로 자신의 능력이 우수함을 나타내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남학생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자신감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Blanch et al., 2008). Gonida와 Leonardi

(2011)에서도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수학 성적이 더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성차는 영역에 따라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컨대 남학생들이 과학(Simpkins & Davis-Kean, 2005), 논리 수학 및 공간지각 능력(Syzmanowicz & Furnham, 2011)에서 여학생들에 비해 자신감이 높은 반면, 읽기에서는 오히려 더 낮았다(Jacobs, Lanza, Osgood, Eccles, & Wigfield, 2002). 이는 언어 능력과 같이 전형적으로 여성적인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한 영역(Gonida & Leondari, 2011)에서, 여학생들이 오히려 남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서 남녀 간 유능성에 대한 자기평가 및 자기평가편향이 어떠한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또래관계와 같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유능감을 보이는 영역(서유진, 김사라형선, 2017)에서 자기평가편향 역시 여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래관계에 대한 자기평가편향과 주관적 안녕감, 대인행동의 관계

실제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자신의 또래관계가 좋다고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신의 또래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고 또래관계에 도움이 되는 대인행동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류지영, 신희천, 김은하, 2020). 그렇다면 실제 또래들이 평정한 것에 비해 자신의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편향되게 과대평가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효과가 있을까?

먼저 자기평가편향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비록 자기고양이 정신건강이나 안녕감 등에 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 연구들(Dufner et al., 2015; Taylor et al., 2003)이 많지만, 부정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 연구들(Colvin et al., 1995; Robins & Beer, 2001)도 적지 않다. 특히 자신의 또래관계에 대한 평가에서 걱정 수준을 넘어서 극도로 편향된 수준의 자기고양이 안녕감에 정적 효과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자기평가편향과 정서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학업적 자기평가편향(자신의 예상 학점과 실제 학점 간 차이)과 정서의 관계에 관한 연구(Willard & Gramzow, 2009)에서, '자신의 학점을 생각할 때 어떤 기분인가'라는 문항에 대해 7점 척도의 긍정형(높을수록 긍정정서)과 부정형(높을수록 부정정서)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처럼 동일문항에 대해 응답방식만 달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평가편향은 긍정정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부정정서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즉, 자기평가편향과 긍정정서의 관계는 자기평가편향과 부정정서의 관계와 단순히 역의 패턴을 보이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평가편향과 정서의 관계를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자기평가편향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또래지위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Back et al., 2010; Brendgen et al., 2004). 그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어떠한 행동특성을 보이는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평가편향의 효과를 살

펴보기 위해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본심리욕구 지지적인 대인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SDT의 기본심리욕구이론에 의하면,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는 개인의 성장과 적응, 안녕감에 필수적인 조건이다(Deci & Ryan, 2000). 자율성은 개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며, 자신을 행동의 주체자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유능성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진하고 변화에 도전해 나가며 자신감과 효능감을 느끼는 것이다. 관계성은 사회적 환경이나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지와 돌봄을 받는 느낌을 의미한다(Deci & Ryan, 2000). 이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심리적 성장과 주관적 안녕감, 수업참여, 학교적응, 또래관계 질, 친밀한 대인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황영훈, 이은주, 2017; Deci & Ryan, 2000; Vansteenkiste & Ryan, 2013). 또래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얼마나 경험하는가는 학생들의 또래관계의 질과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 SDT의 여섯 번째 미니이론인 관계동기이론(Relationship Motivation Theory)에 의하면, 질 높은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를 지지하는 대인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Deci & Ryan, 2014). 구체적으로 자율성 지지행동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상대의 관점을 수용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Bartholomew, Ntoumanis, & Thorgenson-Ntoumani, 2009). 유능성 지지행동은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며, 향상될 수 있다고 믿으며, 능력과 기술이 향상되

도록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Sheldon & Filak, 2008). 관계성 지지행동은 상대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그들을 좋아하고 존중함을 보여주는 것을 포함한다(Sheldon & Filak, 2008). 한편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기본심리욕구가 지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욕구를 지지해주는 대인행동도 중요하다. 가까운 친구관계에서 자율성 지지를 하는 것과 받는 것의 이득을 살펴본 연구(Deci, La Guardia, Moller, Scheiner, & Ryan, 2006)에 의하면, 자율성 지지를 하는 것은 자신이 자율성 지지를 받은 정도를 통제된 후에도 자율성 지지자 자신의 우정의 질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특히 타인에게서 자율성 지지를 받는 것보다 타인의 자율성을 지지해 주는 것이 안녕감을 오히려 더 강력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타인의 기본심리욕구를 지지하는 대인행동은 자신의 주관적 안녕감과 긍정적 또래관계에 기여할 것이며, 또래관계가 좋은 학생일수록 이러한 대인행동을 더 많이 실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자신의 또래관계에 대해 현실을 왜곡해서 과대평가하는 경우에도 과연 기본심리욕구를 지지하는 대인행동을 더 많이 할까? 현실적 자기평가를 하는 사람에 비해서 과소평가자는 어떠할까? 과대평가자는 비록 현실에 비해 자신의 또래관계에 대해 긍정적 착각을 하고 있을지라도 자신이 지각한 또래관계에 상응하는 긍정적 대인행동을 더 많이 실천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Back et al., 2010; Brendgen et al., 2004).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과도한 자신감으로 인해 대인행동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는 과소평가하고 있는 경우 사회적 위축으로 인해 대인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

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백수경, 고재홍, 2007; Downey et al.,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에 대한 자기평가편향과 대인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고, 특히 이러한 관계가 자기평가 편향의 정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A시에 소재한 5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5~6학년 학생 34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16개 학급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남학생 157명(45.4%), 여학생 188명(54.3%), 성별 미확인 1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5학년은 6개 학급에서 34명(38.7%), 6학년은 10개 학급에서 212명(61.3%)이었다. 학년별 성별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료수집은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설문지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에 앞서 담임교사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 설문조사에 대한 안내, 익명성 보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추가적으로 또래지명 설문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응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담임교사의 협조를 받아 학급명부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또래지명 시 해당학생의 이름 대신 학급명부의 번호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또래지명시 같은 학급의 친구들 중에서 지명해야 하며, 또래지명 설문의 내용 및 설문에 대한 의견을 친구들과 공유하지 않아야 함에 주의하도록 안내하였다.

측정도구

지각된 또래관계 질

개인이 자신의 또래관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각된 또래관계 질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배성만, 홍지영 및 현명호(2015)의 한국판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또래관계 질 8문항, 부정적 또래관계 질 5문항 총 13문항, 5점 리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또래관계 질을 측정하는 8문항(예; 나는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다,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을 사용하였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객관적 또래관계 수준

학생들의 실제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또래지명 방법을 활용하였다. 학생들은 담임교사가 제공한 학급명부를 참고하여 '우리 반에서 나와 가장 친한 친구'에 해당하는 학생의 번호를 지명하였다. 무제한 지명이 신뢰도가 높다는 제안(Babcock, Marks, Cricks & Cillessen, 2014)에 따라 학생들에게 우리 반에서 가장 친한 친구의 번호를 최대 열 명까지 적도록 하였다. 친한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지명하도록 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객관적 또래관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내향중심성(In-degree Centrality) 지수를 활용할 것이므로 친한 친구를 지명한 것보다 친한 친구로 지명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간 지명 빈도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친한 친구로 약 5~6명을 지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완료 후 번호 대신

이름이 기입된 응답지가 발견된 경우에 담임 교사가 해당 학생의 번호를 찾아서 교정해 주었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여 타인에게 선택받은 정도를 의미하는 내향중심성 지수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객관적 또래관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의 핵심요인은 높은 긍정정서와 낮은 부정정서, 그리고 삶에 대한 높은 만족감이다(Diener, 1984). 이를 측정하기 위해 Campbell 등(1976)이 개발한 주관적 안녕감 척도(Index of Well-being)를 번안한 척도(한정원, 1997)를 사용하였다. 주관적 안녕감 척도는 개인의 보편적 안녕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9문항과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보편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9문항은 긍정정서 5문항과 부정정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느끼는 긍정 및 부정 정서 상태를 묘사한 형용사 쌍들(예: 지루하다 ↔ 재미있다, 즐겁다 ↔ 괴롭다)을 1~7점으로 양쪽 배치하여 평소 자신의 생활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긍정정서 .92, 부정정서 .83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 지지적 대인행동

또래관계에서 타인의 기본심리욕구를 지지해주는 대인행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Rocchi, Pelletier, Cheung, Baxter와 Beaudry(2017)이 개발하고 류지영 등(2020)이 번안한 대인관계 행동-자기 척도(Interpersonal Behaviours Questionnaire-SELF)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

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를 각각 지지하는 대인행동 3요인과 좌절시키는 대인행동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기본심리욕구 지지적인 대인행동 3요인(자율성 지지행동, 유능성 지지행동, 관계성 지지행동)을 활용하였다. 자율성 지지행동(예; 친구들의 결정을 지지해 준다, 친구들에게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유능성 지지행동(예; 친구들이 해낼 수 있다고 그들에게 말해준다,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관계성 지지행동(예; 친구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진심으로 즐긴다)별로 각 4문항씩 총 12문항의 7점 리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자율성 지지행동 .79, 유능성 지지행동 .81, 관계성 지지행동 .70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객관적 또래관계 수준 측정

객관적 또래관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수집된 또래지명 자료에 대해 Ucinet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개인이 또래에게 가장 친한 친구로 지명된 빈도로 중심성(centrality) 지수를 계산하였다. 중앙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연결된 노드 수를 의미하는 연결정도(degree)를 활용한다. 방향이 있는 그래프에서 그 노드로 오는 방향의 연결을 내향중심성(In-degree)이라고 하며, 그 점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의 연결을 외향중심성(Out-degree)이라고 한다. 외향중심성이 개인의 활동성을 나타내는 반면, 내향중심성은 인기를 나타낸다. 중심성 지수는 학급 내 학생들의 구조적인 위

치를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중심성지수 중에서 내향중심성은 특정한 학생으로부터 지목받는 방향의 연결로 타인에게 선택을 받는 정도를 의미한다(김용학, 김용진, 2016). 내향중심성이 높은 학생은 인기가 많고 신망이 높고 매력적인 친구로 인식되며, 다른 학생들이 그 학생과 관계를 맺고 싶은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은실, 최명숙, 2011). 따라서 내향중심성은 실제 개인이 또래 집단 내에서 맺고 있는 객관적인 또래관계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내향중심성은 아래 수식에서와 같이 k 연결망에서 행위자 i 가 다른 모든 행위자들 j 로부터 받는 관계의 수로 나타낸다(김용학, 김영진, 2016). 한편 학급별로 학생 수(즉 연결망의 크기)가 다르므로 개별 학생들이 연결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개별 노드의 연결 정도를 연결 가능한 최댓값($n-1$)로 나눠준 표준화 값을 활용하였다.

$$indegree_{ik} = \sum_{j=1}^N Z_{ijk} = Z_{jk}$$

자기평가편향의 계산

자기평가편향이란 자기평가와 객관적 준거 간 불일치의 정도를 반영한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지각과 그에 대응하는 실제 지표의 차이점수(자기평가 점수-준거 점수)를 활용하였다(고재홍, 전병우, 2003; Colvin et al., 1995). 그런데 이 방법의 경우, 은 준거점수가 선행적으로 차감되므로 자기평가편향 점수와 준거점수 간에 부적 교란(negative confounding)이 일어나게 되는 제한점이 있다(Dufner et al., 2015). 이에 따라 최근 연구에서는 표준화 잔차 방법(SCR; self-criterion residual strategy)을 활용하고 있다

(Dufner et al., 2015; Lee, 2020). 여기서 자기평가편향 점수는 자기평가를 준거변인으로, 실제 객관적 지표를 예측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표준화 잔차점수로 계산된다. 이 방법은 자기평가편향 점수가 준거 점수와 통계적으로 독립적이므로 자기평가편향과 결과변인 간 상관은 준거와의 공변량으로 인한 억제효과(suppression)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Murphy et al., 2017).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또래관계에 대한 자기평가편향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지각 또래 관계를 준거변인으로, 실제 또래관계(내향중심성)를 예측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표준화 잔차점수를 자기평가편향 점수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잔차점수는 자기지각 또래관계 중에서 실제 또래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변량을 의미한다. 잔차점수가 양의 값을 가진다면 실제 또래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긍정적인 지각(과대평가)을 하고 있음을, 음의 값을 가진다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부정적인 지각(과소평가)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기평가편향 수준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과 대인행동의 차이 검증

자기평가편향의 수준에 따라 연구대상을 과대평가, 현실적 평가, 과소평가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준화 점수의 절대값이 0.5 이상인 경우 자기평가가 편향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tephens et al., 2016). 이에 따라 표준화 잔차점수를 기준으로 -0.5 이하인 경우에 과소평가집단($n = 111$), +0.5 이상인 경우 과대평가집단($n = 97$), 그리고 -0.5에서 +0.5 사이의 값을 가진 경우 현실적 평가집단($n = 135$)으로 구분하였다. 세 집단 간에 주관적 안

녕감과 대인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비교를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적정한계선 가설의 검증

적정한계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자기평가편향과 결과변인들 간에 곡선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자기평가편향 점수를 제공하여 새로운 변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긍정정서, 부정정서, 자율성 지지행동, 유능성 지지행동, 및 관계성 지지행동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일련의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과 학년을 통제한 후, 2단계에서 자기평가편향을 투입하고, 3단계에서 자기평가편향 제공항을 투입하여 각 종속변인에 대해 유의미한 예측효과가 있는지, 설명량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결 과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연구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또래관계 질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긍정정서는 높고($r = .29, p < .001$), 부정정서는 낮았다($r = -.24, p < .001$). 또래관계 질은 기본심리욕구 지지적인 대인행동과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_s = .36 \sim .61, ps < .001$). 자기평가편향이 높을수록(과대평가할수록) 긍정정서는 높고($r = .26, p < .001$), 부정정서는 낮았다($r = -.22, p < .001$). 대인행동은 개인이 지각한 또래관계 질과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인 반면, 또래관계의 객관적 지표인 내향중심성과의 상관은 낮은 수준은 나타났다. 관계성 지지행동과 유능성 지지행동은 내향중심성과 유의미한 상관을

표 1. 연구변인들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1	2	3	4	5	6	7	8	9	10
1. 또래관계질	1									
2. 내향중심성	.20***	1								
3. SEB	.98***	.00	1							
4. SEB2	-.15**	-.10	-.13*	1						
5. 긍정정서	.29***	.19***	.26***	-.06	1					
6. 부정정서	-.24***	-.13*	-.22***	.16**	-.69***	1				
7. 심리적안녕감	.30***	.17***	.27***	-.12*	.93***	-.90***	1			
8. 자율성지지	.36***	.09	.35***	-.01	.12*	-.09	.13*	1		
9. 유능성지지	.51***	.16**	.49***	-.06	.24***	-.20***	.25***	.69***	1	
10. 관계성지지	.61***	.19***	.59***	-.17**	.29***	-.22***	.28***	.53***	.67***	1
평균	3.76	.11	.00	.99	5.51	2.66	5.43	5.19	5.37	5.60
표준편차	.72	.09	1.00	1.42	1.39	1.44	1.30	1.02	0.98	0.94

주. SEB = 자기평가편향; SEB2 = 자기평가편향의 제공항, * $p < .05$, ** $p < .01$, *** $p < .001$

보인 반면($r_s > .16, p_s < .01$), 자율성 지지행동은 내향중심성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r = .09, p = .099$).

또래관계 질과 내향중심성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지만($r = .20, p < .001$), 두 변인이 모두 또래관계 지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개인이 지각하는 또래관계 질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실제 개인이 가까운 친구로 지명되는 정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향중심성 외에 다양할 수 있으며, 내향중심성에 비해 자신의 또래관계 질을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지각한 학생들, 또는 비교적 정확히 지각한 학생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또래관계에 대한 자기평가편향의 성별 차이

자기평가편향의 정도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성별에 따른 또래관계의 질, 내향중심성의 차이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평균비교를 실시한 결과, 내향중심성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다소 높기는 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각된 또래관계의 질에서는 여학생($M = 3.85, SD = .72$)들이 남학생들($M = 3.68, SD = 0.73$)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t = 2.13, df = 340, p = .034$.

다음으로 자기평가편향의 수준에 따라 구분된 세 집단(과대평가, 과소평가, 현실적 평가 집단)의 분포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있어서 집단간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2) = 6.58, p = .037$.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 표준화 잔차(d_{ij})를 살펴본 결과, 과소평가 집단에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유의미하게 더 많이 포함된 반면($d_{ij} = 2.23$), 과대평가 집단에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유의미하게 더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d_{ij} = 2.11$). 현실적 평가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없었다($d_{ij} = 0.20$).

자기평가편향의 수준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과 대인행동의 차이

자기평가편향의 수준별 세 집단(과대평가, 과소평가, 현실적 평가 집단) 간에 주관적 안녕감 및 대인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전에, 자기평가편향 집단들 간에 실제 또래관계(내향중심성)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또래관계의 수준이 다양한 학생들이 실제 각 집단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자기평가편향

표 2. 성별에 따른 과소평가, 과대평가, 현실적 평가 집단별 분포의 차이

	과소평가	현실적 평가	과대평가	전체
남	70 (20.5%)	72 (21.1%)	44 (12.9%)	186 (54.4%)
여	41 (12.0%)	62 (18.1%)	53 (15.5%)	156 (45.6%)
수정된 표준화 잔차(d_{ij})	-2.23	0.20	2.11	
전체	111 (32.5%)	134 (39.2%)	97 (28.4%)	342 (100%)

의 정도가 실제 또래관계의 수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 세 집단 간에 내향중심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340) = 1.36, p = .258, \eta_p^2 = .008$. 그러나 자신의 또래관계 질에 대한 지각에서는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340) = 598.70, p < .001, \eta_p^2 = .779$. 현실적 평가 집단($M = 3.80, SD = 0.16$)에 비해 과소평가 집단($M = 2.97, SD = 0.45$)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의 또래관계 질을 보인 반면, 과대평가 집단($M = 4.61, SD = 0.31$)이 유의미하게 가장 높은 수준의 또래관계 질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기 위해 자기평가편향 수준별 세 집단 간에 공분산 행렬이 동일함을 확인한 결과, 집단간 동질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ox's $M = 45.01, p = .048$. 따라서 일원 분산분석을 통해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세 집단 간 주관적 안녕감(긍정정서와 부정정서)과 대인행동(자율성 지지행동, 유능성 지지행동, 관계성 지지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과 대인행동의 집단별 차이는 표 3과 같다. 관계성 지지행동($\eta_p^2 = .24$)과 유능성 지지행동($\eta_p^2 = .20$)의 효과크기가 가장 큰 반면, 정서의 효과크기($\eta_p^2 \leq .06$)는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소평가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긍정정서와 높은 부정정서를 나타냈다; $F(2, 333) \leq 10.06, p < .001$ 그런데 현실적 평가 집단과 과대평가 집단 간에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대인행동에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지지행동에서 모두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2, 333) \geq 18.47, p < .001$. 과대평가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기본심리 욕구 지지적인 대인행동이 유의미하게 가장 높았으며, 현실적 평가 집단이 과소평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평가편향의 적정한계선 가설의 검증

자기평가편향이 대인행동 및 주관적 안녕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에 적정한계선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기평가

표 3. 과소평가, 과대평가, 현실적 평가 집단 간 주관적 안녕감과 대인행동의 차이: 평균 (표준편차)

	과소평가		현실적 평가		과대평가		F(2, 333)	η_p^2
긍정정서	5.12a	(1.43)	5.59b	(1.30)	5.86b	(1.33)	10.06	.06
부정정서	3.13a	(1.32)	2.50b	(1.34)	2.43b	(1.60)	7.47	.04
자율성지지행동	4.80a	(0.99)	5.26b	(0.94)	5.64c	(0.96)	18.47	.10
유능성지지행동	4.85a	(0.94)	5.42b	(0.90)	5.99c	(0.75)	41.09	.20
관계성지지행동	5.05a	(0.93)	5.68b	(0.78)	6.19c	(0.72)	52.42	.24

주. 집단별 평균 뒤 아래첨자가 다른 경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p < .05$). $\eta_p^2 =$ 부분 에타제곱

편향과 결과변인 간의 곡선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자기평가편향 값을 제공하여 새로운 변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자기평가편향과 자기평가편향의 제공항을 예측변인으로, 주관적 안녕감 및 기본심리욕구 지지적인 대인행동을 각각 결과변인으로 두고 단계적 회귀분석을 6회 반복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성별과 학년을 통제한 후, 2단계에서 자기평가편향을 투입하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자기평가편향의 제공항을 투입하여 각 결과변인의 예측효과를 살펴보았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과 학년을 통제한 후 자기평가편향은 긍정정서와 자율성 지지행동, 유능성 지지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자기평가편향을 통제한 후 자기평가편향 제공항은 유의미한 예측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자기평가편향이 증가할수록 긍정정서는 선형적으로 높아지고, 자율성 지지

행동과 유능성 지지행동도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부정정서와 관계성 지지행동에 대해 자기평가편향의 선형 효과뿐만 아니라 곡선적 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평가편향이 높을수록 부정정서는 낮고($\beta = -.26, p < .001$), 관계성 지지행동은 높았다($\beta = .59, p < .001$). 그리고 이러한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자기평가편향 제공항은 부정정서에 대해 유의미한 정적효과($\beta = .14, p = .008$), 관계성 지지행동에 대해 유의미한 부적효과($\beta = -.09, p = .046$)가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평가편향이 높을수록 부정정서는 낮고 관계성 지지행동은 높지만, 자기평가편향이 극히 높은 수준에서는 오히려 부정정서는 높아지고 관계성 지지행동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표 4. 주관적 안녕감, 대인행동에 대한 자기평가편향의 예측효과

		주관적 안녕감				기본심리욕구지지 대인행동					
		긍정정서		부정정서		자율성지지		유능성지지		관계성지지	
		β	p	β	p	β	p	β	p	β	p
1	성별	.12	.028	-.11	.052	-.11	.048	-.11	.048	-.14	.011
	학년	-.03	.554	.01	.910	-.05	.399	-.01	.944	.01	.929
	R2	.02	.079	.01	.151	.01	.092	.01	.140	.02	.038
2	SEB	.28	<.001	-.26	<.001	.35	<.001	.49	<.001	.59	<.001
	R2	.09	<.001	.07	<.001	.13	<.001	.25	<.001	.35	<.001
	$\Delta R2$.08	<.001	.05	<.001	.12	<.001	.23	<.001	.33	<.001
3	SEB2	-.04	.497	.14	.008	.04	.459	.01	.974	-.09	.046
	R2	.10	<.001	.09	<.001	.14	<.001	.25	<.001	.36	<.001
	$\Delta R2$.001	.497	.02	<.008	.01	.459	.00	.974	.01	.046

주. 성별: 남자=1, 여자=0. SEB = 자기평가편향, SEB2 = 자기평가편향의 제공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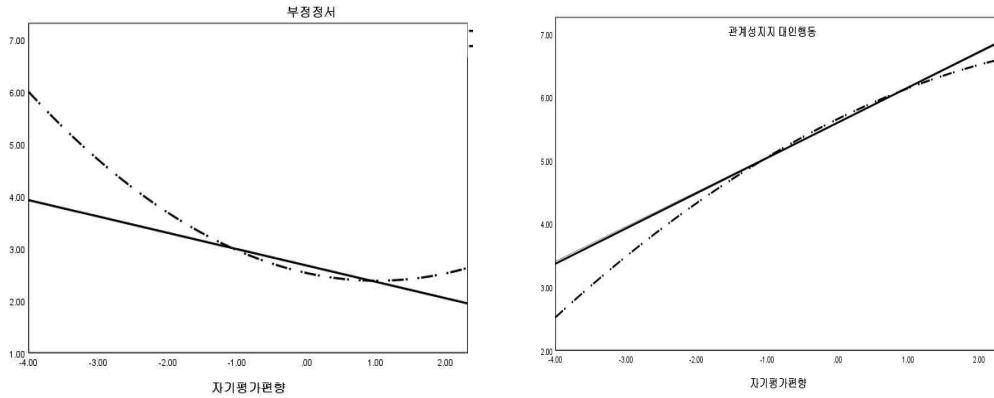


그림 1. 자기평가편향과 부정정서, 관계성지지 대인행동의 곡선적 관계

논의 및 결론

긍정적인 자기평가는 비록 현실에 비해 많이 왜곡되었을지라도 적응에 도움이 될까? 이와 반대로 정확하고 현실적인 자기평가가 적응에 더 도움이 될까? 이러한 질문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으로 편향된 자기평가가 개인의 정서와 행동에 있어서 과연 적응적인지 명확히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또래관계에 한정된 영역특수적 자기평가와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또래관계 지표인 내향 중심성을 준거로 자기평가편향을 측정하였다. 자기평가편향의 정도에 성별 차이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기평가편향의 정도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 대인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긍정적 착각의 적정한계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자기평가편향과 주관적 안녕감, 대인행동 간에 곡선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자기평가편향의 효과에 관해 비밀관적인 연구결과가 혼재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기평가편향의 영역특수성과

일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꼽을 수 있다 (Lee, 2020). 어떠한 영역에서의 자기평가편향 인가에 따라, 또한 어떠한 영역에 대한 효과 인가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노연희, 손영우, 2011; Murphy et al., 2017).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기평가편향을 또래관계에 대한 자기평가편향으로 한정하고, 심리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자기평가편향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 자신의 또래관계에 대해 객관적 지표가 보여주는 실제 또래관계보다 더 긍정적으로 편향되게 지각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고 기본심리욕구 지지적인 대인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록 본 연구가 횡단적 관련성에 기반한 것이라는 제한점은 있지만, 자신의 또래관계에 대한 긍정적 자기평가편향이 적어도 횡단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편향된 자기평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흔들리게 되고, 초기의 긍정적 인상이나 높은 자존감이 점차 사라진다는 주장 (Frey & Volland, 2011)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학생들은 처음에는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인해 또래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만, 시간이 갈수록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로 바뀔 수 있다. 이에 따라 Robin과 Beer(2001)는 자기고양이 단기적 이득에도 불구하고 종단적으로 대가가 따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과 달리 자신의 또래관계에 대한 자기고양이 단기종단적으로 사회적 선호도의 증가, 우울감의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 연구(Brendgen et al., 2004)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된 자기평가편향의 효과는 횡단적인 수준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효과가 종단적으로도 유지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추가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기평가편향은 부정정서와 유의미한 정적 곡선관계, 관계성지지 대인행동과 유의미한 부적 곡선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자기평가편향이 높을수록 부정정서는 낮고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관계성 욕구를 지지하는 대인행동을 많이 실천하지만, 자기평가편향이 적정수준을 넘어서면 이러한 효과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정서는 높아지고 관계성 지지행동은 감소함을 의미한다. 즉 긍정적 착각의 적정한계선 가설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현실을 왜곡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그에 비례해서 긍정적 효과가 무한정 증가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Baumeister 등(1996)이 주장한 바와 같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 착각을 하고 있는 학생은 실제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냉엄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또래와의 관계에서 쉽게 자신감을 잃게 되어 부정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관계성 지지행동을 철회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Brendgen 등(2004)의 연구

에서도 자신의 또래관계에 대한 자기평가편향은 공격성과 곡선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 즉, 또래관계에 대해 극단적으로 과대평가한 학생과 과소평가한 학생은 자신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한 학생에 비해 6개월 후 공격성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평가편향의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면밀히 살펴보면 부정정서와 관계성 지지행동은 일면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자기평가편향과 부정정서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신의 또래관계에 대해 과소평가할수록 부정정서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지각하면 약간 부정적인 지각을 하는 경우에 비해 부정정서의 수준이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자신의 또래관계에 대해 과대평가할수록 부정정서가 낮아지지만, 극단적으로 편향된 긍정적 자기평가는 오히려 부정정서를 높이는 효과를 나타냈다. 자신의 또래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 환상을 가진 경우와 지나치게 왜곡해서 과소평가하는 경우 모두 적정 수준의 현실적인 자기평가를 하는 학생들에 비해 부정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또래관계에 대한 현실적 자기평가가 과대평가와 과소평가에 비해 가장 낮은 부정정서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부정정서와 관련해 현실적 자기평가가 가장 적응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평가편향과 관계성 지지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평가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편향될수록 즉 과소평가할수록 관계성 지지행동을 더 적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신의 또래관계에 대해 극단적으로 낮게 과소평가하는 학생들이 특히

관계성 지지행동이 낮았다. 자기충족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에 의하면 타인의 기대와 예측에 부합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실제로 기대한 대로 현실화되는 경향이 있다(Madon, Jussim, & Eccles, 1997). 타인의 기대뿐만 아니라 자기평가 역시 그러한 평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며, 그로 인해 자기평가와 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실제에 비해 자신의 사회적 유능성을 낮게 지각하면 또래의 거부나 부정적 행동을 예상하므로 타인의 아주 미미한 거부 신호에도 쉽게 동요하며 걱정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또래와의 사회적 접촉을 회피하거나 사회적 위축을 선택하게 된다(Downey et al., 1998). 따라서 자신의 또래관계에 대해 현실을 왜곡해서 지나치게 과소평가를 하면 아마도 자기충족적 예언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부정적 또래관계에 상응하는 부정적 대인행동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또래관계에 대해 긍정적 자기평가편향이 증가할수록 관계성지지 대인행동이 증가하지만, 적정수준을 넘어서면 더 이상의 증가는 없었다. 즉 자신의 또래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 환상을 가진 경우 적정수준의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 비해 관계성을 지지하는 대인행동을 더 많이 실천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편향된 긍정적 자기평가로 인해 관계성지지 대인행동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또래관계에 대한 과대평가는 과소평가의 경우와 달리 관계성지지 대인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긍정적 자기평가편향이 높을수록 긍정정서가 높고, 타인의 자율성 및 유능성을 지지하는 대인행동을 많이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곡선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신의 또래관계에 대해 비록 극단적으로 편향되었을지라도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할수록 높은 긍정정서를 경험하며, 자율성 지지행동과 유능성 지지행동의 수준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기평가편향이 부정정서와 관계성 지지행동과는 유의미한 곡선관계를 나타낸 반면, 긍정정서, 자율성지지 대인행동과 유능성지지 대인행동에서는 선형 관계만 유의미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착각의 적정한계선 가설이 모든 결과변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부정정서와 관계성지지 대인행동에서는 곡선관계가, 긍정정서, 자율성 지지행동과 유능성 지지행동에서는 선형 관계가 있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 인과적 기제를 검증하지 않아서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긍정적 자기평가편향이 높을수록 긍정정서는 선형으로 증가한 반면 부정정서는 정적 곡선의 양상을 나타낸 이유에 대해 고찰해보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부풀려진 자기평가로 인해 평소 생활 속에서 자신의 삶이 흥미롭고 희망적이고 소중하다는 긍정정서를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이 지각한 또래관계가 실제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음을 드러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부정정서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현실적 자기평가를 하는 학생들과 비교해 부정정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덧붙여서 비록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간에 높은 부적 상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평가편향과 긍정정서의 관계는 자기평가편향과 부정정서

의 관계와 단순한 역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 (Willard & Gramzow, 2009)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후속 연구를 통해 자신의 또래관계에 대한 자기고양이 실제로 높은 부정정서와 높은 긍정정서를 동시에 수반하는 양면적 특성인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기평가편향이 유능성이나 자율성을 지지하는 대인행동과 선형관계가 있는 반면 관계성지지 대인행동과는 곡선관계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고찰해보면,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기평가편향이 또래관계에 대한 자기평가편향이라는 점에서 유능성이나 자율성보다는 관계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일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내향중심성이 보여주고 있는 객관적인 또래관계 지표에 비해 자신의 또래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생들의 경우,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내향중심성이 스스로 평가한 것만큼 높지 않음을 느끼게 되면 또래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대인행동 중 유능성이나 자율성과 관련된 대인행동보다는 관계성과 관련된 대인행동을 특히 손상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된 관계성 지지행동은 '친구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친구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시간을 낸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관계성 지지행동은 대체로 친구들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미 자신의 또래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편향된 자기 지각을 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또래관계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으로 인해 더 이상 친구들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하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일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즉, 본 연구에서 과대평가집단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일반 초등학생들 중에서 표준편차가 0.5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므로 이들이 임상적인 수준에서 과도하게 현실을 왜곡하여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부풀려진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초등학생들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편향된 자기평가를 하는 학생들이 보여주는 행동특성으로 제한해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여학생들은 실제 자신의 능력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Syzmanowicz & Furnham, 2011).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들이 지각한 또래관계 질이 더 높았을 뿐만 아니라 또래관계에 대한 자기평가도 긍정적으로 편향된 경향이 더 높았다. 이는 자신감, 유능감, 또는 자기평가에서의 성별 차이를 모든 영역에 일반화하여 해석하기 보다는 영역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Beyer(1999)에 의하면 정치나 스포츠와 같이 남성적인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한 영역에서 여학생들의 자기평가는 부정적으로 편향된 경향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여학생들이 오히려 자신의 또래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한 점은 흥미롭다. 후속 연구를 통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은 능력과 유능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검증하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 질을 기준으로 사회적 자기평가편향을 도출하였지만, 또래관계에서

의 인기도나 또래지위와 같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특성(LaFontana & Cillessen, 2010)을 기준으로 사회적 자기평가편향을 도출한다면 본 연구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지 검증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후속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지각하는가는 이들의 행동과 정서, 구체적으로 심리적, 사회적, 학업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인특성이라는 점(Cillessen & Bellmore, 1999)에서 학생들의 적응을 이해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인임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자기평가의 수준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자기평가가 객관적 준거에 비추어 얼마나 편향되었는지 또는 정확한지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자기개념 관련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영역일반적인 자기평가편향 대신 또래관계에 관한 영역특수적 자기평가편향을 탐구하였으며, 이러한 자기평가편향의 영역에 상응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특히 대인행동과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향중심성을 실제 또래관계의 지표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교육현장에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자신감과 유능감을 높이는 것은 적응적 발달에 중요하며, 그에 따라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낮추고 긍정적 자기평가를 증진하는 초기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Jacobs, Szer, & Roodenburg, 2012). 그러나 과도하게 편향된 자신감도 과연 바람직한지, 또는 모든 학생에게 그러한 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 없이 학생들의 자신감을 일률적으로 높이려는 노력은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자신의 지각된 유능감을 뒷받침하는 실제 능력과 기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긍정적 자기평가를 증진하려는 개입은 자칫 '독이 든 성배'와 같은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Lee, 2020). 본 연구를 통해 또래관계에 대한 자기고양이 심리적 및 사회적 적응에 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일부 변인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효과에 적정한계선이 있음도 확인하였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지표에 비해 과도하게 편향된 자기평가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한 주의를 기울인 세심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도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비록 긍정적으로 편향된 자기평가가 주관적 안녕감과 대인행동에 정적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지만, 이러한 효과가 종단적으로 지속되는지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자기고양이는 비록 단기적 이득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등 종단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Robins & Beer, 2001).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자기평가편향은 단기적 이익과 종단적 비용의 역설적이고 양면적인 특성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적 자기평가편향이 어떠한 인과적 기제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과 대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과소평가자가 과대평가자에 비해 어떠한 인지와 정서를 통해 타인의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의 욕구를 지지하는 대인행동을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하는지 규명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자기평가편향의 효과는 왜 긍정정서, 유능성 지지행동, 자율성 지지행동과는 선형적 관계를, 왜 부정정서와 관계성 지지행동과는 곡선관계를 나타냈는지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개인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자기평가의 특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자기평가편향의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Brendgen et al., 2004; Lee, 2020). 만약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경우,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변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상쇄될 것이며, 그에 따라 자기평가편향의 효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차이를 살펴 보는데 그쳤으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다른 개인차 요인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지 살펴본다면 자기평가편향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긍정적 자기평가를 돕는 교육적 개입이 이러한 개인차 요인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실천전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고재홍, 전병우 (2003). 두 자기평가 편향과 자존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2), 1-16.

김용학, 김용진 (2016). *사회 연결망 분석*. 제 4 판, 서울: 박영사

노연희, 손영우 (2011). 자기고양과 적응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

(4), 61-76.

류지영, 신희천, 김은하 (2020). 한국판 기본심리적 욕구에 기반한 대인관계 행동 척도 (IBQ)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203-1224.

박유빈, 박선웅 (2015). 자기고양편향과 학업성취: 부적 곡선 상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3), 151-164.

박은실, 최명숙 (2011). 온라인 토론학습에서 사회연결망 중심도가 지식구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미디어연구*, 17(3), 353-377.

배성만, 홍지영, 현명호 (2015).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5), 325-344.

백수경, 고재홍 (2007). 자기고양편향이 행복감과 인기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1), 89-104.

서유진, 김사라형선 (2017).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와 모의 양육태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또래 유능성의 조절 효과. *아동학회지*, 38(3), 65-73.

한정원 (1997). 정서 표현성이 건강 및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황영훈, 이은주 (2017). 중학생의 사회적 목표, 성취목표지향성, 기본심리욕구, 또래관계의 질 및 수업참여의 구조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4(1), 1-21.

Babcock, B., Marks, P. E., Crick, N. R., & Cillessen, A. H. (2014). Limited nomination reliability using single- and multiple-item measures. *Social Development*, 23(3), 518-536.

Back, M. D., Schmukle, S. C., & Egloff, B. (2010). Why are narcissists so charming at first sight? Decoding the narcissism-popularity

- link at zero acquain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1), 132-145.
- Bartholomew, K., Ntoumanis, N., & Thorgenson-Ntoumani, C. (2009). A review of controlling motivational strategies from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Implications for sports coaches.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2, 215-233.
- Baumeister, R. F. (1989). The optimal margin of illus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8, 176-189.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1), 5-33.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1), 1-44.
- Beyer, S. (1999). The accuracy of academic gender stereotypes. *Sex Roles*, 40(9-10), 787-813.
- Blanch, D. C., Hall, J. A., Roter, D. L., & Frankel, R. M. (2008). Medical student gender and issues of confidence.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72(3), 374-381.
- Brendgen, M., Vitaro, F., Turgeon, L., Poulin, F., & Wanner, B. (2004). Is there a dark side of positive illusions? Overestimation of social competence and subsequent adjustment in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2(3), 305-320.
- Butler, R. (2011). Are positive illusions about academic competence always adaptive, under all circumstances: New results and future direc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0, 251-256.
- Campbell, A., Converse, P.E., & Rogers, W.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Sage.
- Cillessen, A. H. N., & Bellmore, A. D. (1999). Accuracy of social self-perceptions and peer competence in middle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5, 650-676.
- Colvin, C. R., Block, J., & Funder, D. C. (1995). Overly positive self-evaluations and personality: Negative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152-1162.
- Deci, E. L., La Guardia, J. G., Moller, A. C., Scheiner, M. J., & Ryan, R. M. (2006). On the benefits of giving as well as receiving autonomy support: Mutuality in close friend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3), 313-327.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eci, E. L., & Ryan, R. M. (2014). Autonomy and need satisfaction in close relationships: Relationships motivation theory. In *Human motiv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p. 53-73). Springer, Dordrecht.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owney, G., Lebolt, A., Rincon, C., & Freitas, A. L. (1998). Rejection sensitivity and children's interpersonal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69,

- 1074-1091.
- Dufner, M., Reitz, A. K., & Zander, L. (2015). Antecedents, consequences, and mechanisms: On the longitudinal interplay between academic self enhancement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83*(5), 511-522.
- Dupeyrat, C., Escribe, C., Huet, N., & Regner, I. (2011). Positive biases in self-assessment of mathematics competence, achievement goals, and mathematics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0*, 241-250.
- Ebesutani, C., Regan, J., Smith, A., Reise, S., Higa-McMillan, C., & Chorpita, B. F. (2012). The 10-item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for children, child and parent shortened versions: Application of item response theory for more efficient assessment.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4*, 191-203.
- Frey, U., & Voland, E. (2011). The evolutionary route to self-deception: Why offensive versus defensive strategy might be a false alternativ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4*(1), 21-22.
- Gonida, E. N., & Leondari, A. (2011). Patterns of motivation among adolescents with biased and accurate self-efficacy belief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0*(4), 209-220.
- Jacobs, J. E., Lanza, S., Osgood, D. W., Eccles, J. S., & Wigfield, A. (2002). Changes in children's self-competence and values: Gender and domain differences across grades one through twelve. *Child Development, 73*, 509-527.
- Jacobs, K. E., Szer, D., & Roodenburg, J. (2012). The moderating effect of personality on the accuracy of self-estimates of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6), 744-749.
- Kim, Y.-H., & Chiu, C.-Y. (2011). Emotional costs of inaccurate self-assessments: Both self-effacement and self-enhancement can lead to dejection. *Emotion, 11*, 1096-1104.
- Kwan, V. S., John, O. P., Kenny, D. A., Bond, M. H., & Robins, R. W. (2004). Reconceptualiz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nhancement bias: An interpersonal approach. *Psychological Review, 111*, 94-110.
- LaFontana, K. M., & Cillessen, A. H. (2010).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priority of perceived statu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Social Development, 19*(1), 130-147.
- Leduc, C., & Bouffard, T. (2017). The impact of biased self-evaluations of school and social competence on academic and social functioning.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55*, 193-201.
- Lee, E. J. (2020). Biased self-estimation of maths competence and subsequent motivation and achievement: differential effects for high-and low-achieving students. *Educational Psychology, 1-21*. DOI: 10.1080/01443410.2020.1821869
- Madon, S., Jussim, L., & Eccles, J. (1997). In search of the powerful self-fulfilling prophe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4), 791-809.
- Muenks, K., Wigfield, A., & Eccles, J. S. (2018). I can do this! The development and calibration of children's expectations for success and competence beliefs. *Developmental*

- Review*, 48, 24-39.
- Murphy, S. C., Barlow, F. K., & von Hippel, W. (2017). A longitudinal test of three theories of overconfidenc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9(3), 353-363.
- Narciss, S., Koerndle, H., & Dresel, M. (2011). Self-evaluation accuracy and satisfaction with performance: Are there affective costs or benefits of positive self-evaluation bia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50, 230-240.
- Rocchi, M., Pelletier, L., Cheung, S., Baxter, D., & Beaudry, S. (2017). Assessing need-supportive and need-thwarting interpersonal behaviours: The Interpersonal Behaviours Questionnaire (IBQ).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4, 423-433.
- Robins, R. W., & Beer, J. S. (2001). Positive illusions about the self: Short-term benefits and long-term cos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340-352.
- Sheldon, K. M., & Filak, V. (2008). Manipulating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support in a game-learning context: New evidence that all three needs matter.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7(2), 267-283.
- Simpkins, S. D. & Davis-Kean, P. E. (2005). The intersection between self-concepts and values: Links between beliefs and choices in high school.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10, 31-47.
- Stephens, H. F., Lynch, R. J., & Kistner, J. A. (2016). Positively biased self-perceptions: Who has them and what are their effect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47(2), 305-316.
- Swann Jr, W. B., Chang-Schneider, C., & Larsen McClarty, K. (2007). Do people's self-views matter? Self-concept and self-esteem in everyday life. *American Psychologist*, 62(2), 84-94.
- Syzmanowicz, A., & Furnham, A. (2011). Gender differences in self-estimates of general, mathematical, spatial and verbal intelligence: Four meta analyse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5), 493-504.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Taylor, S. E., Lerner, J. S., Sherman, D. K., Sage, R. M., & McDowell, N. K. (2003). Portrait of the self-enhancer: Well adjusted and well liked or maladjusted and friendl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165-176.
- Willard, G., & Gramzow, R. H. (2009). Beyond oversights, lies, and pies in the sky: Exaggeration as goal proje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4), 477-492.

원고접수일 : 2020. 08. 10.

수정원고접수일 : 2020. 11. 12.

최종게재결정일 : 2020. 11. 13.

How self-estimation bias in peer relationship relates to subjective well-being and to interpersonal behaviors: Testing the optimal margin hypothesis

Eunju Le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Hyeseon Yeom

Shilla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overly positive self-estimations in peer relationships relate to subjective well-being and to the occurrence of interpersonal behaviors supporting basic psychological need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study tested the optimal margin hypothesis of positive illusion by examining the curvi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The sample consisted of 346 fifth and sixth grade students. The self-criterion residual method was used to derive self-estimation bias scores by regressing the real peer relations index (i.e., In-degree) on their perceived peer relationship qualities. The results showed that girls more strongly overestimated the quality of their peer relationships than boys. Self-estimation biases had a positive curvilinear relationship with negative affects and a negative curvilinear relationship with relatedness needs supporting interpersonal behaviors. These results supported the existence of the optimal margin of positive illusion because overestimations of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were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negative affects and relatedness needs-supporting interpersonal behaviors, though these benefits flattened out and no further benefit was observed after an optimal level of overestimation. However, self-estimation bias was linearly associated with positive affect, autonomy needs-supporting interpersonal behaviors, and competence needs-supporting interpersonal behaviors.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optimal margin hypothesis was not supported for all outcome variables.

Key words : self-estimation biases, positive illusion, overestimation, interpersonal behaviors, subjective well-being